

ELW란

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는 이름 그대로 주식(Equity)에 연계된(Linked) 권리증서(Warrant)입니다.

- “주식에 연계됨” - 개별종목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의 성질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 “권리증서” - 파생상품 중 옵션(권리를 주고 받는 계약)을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화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ELW: 주식에 연계된 권리증서

ELW를 주식에 연계된 권리증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시점(만기)에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살 수 있는 권리 - 콜(Call)ELW
- 팔 수 있는 권리 - 풋(Put)ELW

ELW 매수자는 이 '권리'를 갖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할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지만 불리할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김한국은	→	ELW매수자
3개월 후에	→	만기 : 3개월 후
삼성전자 주식을	→	기초자산 : 삼성전자 주식
1주당 5만원에	→	행사가격 : 5만원
사기로 하되 당시의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수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	권리유형 : 살 수 있는 권리 (콜ELW)
상대방에게 1천원을 지불하고 삼	→	ELW가격 : 1천원

< 예시1 : 콜ELW >



콜ELW 매수자의 수익구조

앞의 [예시1]에서 김한국은 3개월 후의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원을 넘어가더라도 1주당 5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5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매 1원의 상승마다 1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단, 처음에 콜ELW를 1천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주가가 5만1천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입니다. 한편 3개월 후의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엔 삼성전자 주식을 5만원에 살 이유가 없으므로, 콜ELW의 권리행사를 포기하여 처음에 지불한 콜ELW 가격 1천원만큼만 손실을 보면 됩니다.

콜ELW 매수자의 수익구조

만기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 이하일 경우는 0 (콜ELW 매수가격만큼 손해), 행사가격에서 콜ELW 매수가격을 더한 가격이 손익분기점, 주가가 손익분기점 이상일 경우 초과한 정도만큼 가치가 상승합니다.



< 콜ELW 매수자의 만기 손익구조 >

콜ELW를 매수하는 이유

콜ELW를 매수하는 이유는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만기까지 보유하여 권리 행사를 통한 수익 기대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익분기점(행사가격 + 매수한 콜ELW 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혹은 예상과 다르게 기초자산의 하락하더라도 손실은 제한하고 싶을 때 콜ELW를 매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만기 이전에 매매차익을 얻기 위함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콜ELW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때 콜ELW를 매수한 후 만기 이전에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풋ELW 매수자의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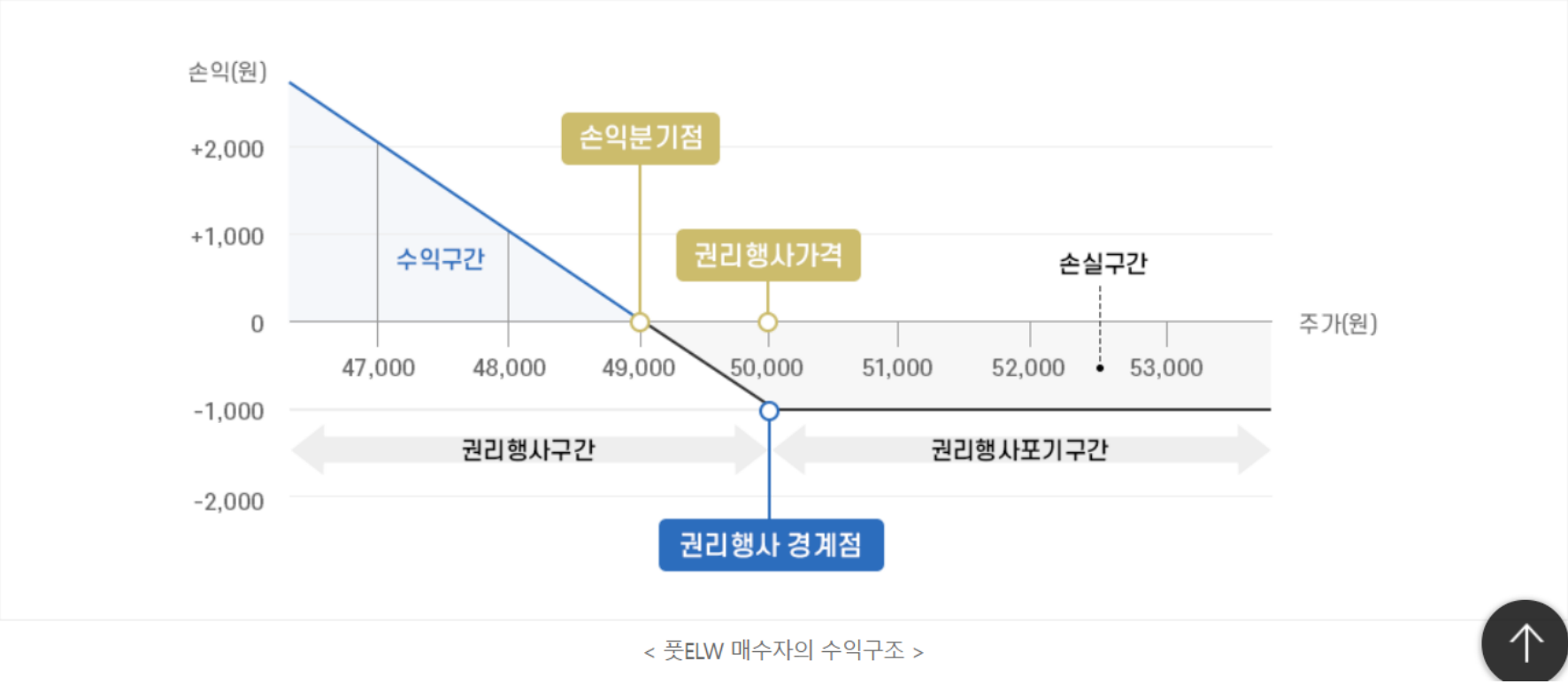
쿨ELW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였다면 반대로 풋ELW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p><i>권보유자</i></p> <p><u>김한국</u>은</p>	→	ELW매수자
3개월 후에	→	만기 : 3개월 후
삼성전자 주식을	→	기초자산 : 삼성전자 주식
1주당 5만원에	→	행사가격 : 5만원
<p><i>악기</i></p> <p>사이로 하되 당시의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를 포기할 수 있는 <u>권리</u>를</p>	→	권리유형 : 팔 수 있는 권리 (풋ELW)
상대방에게 <u>1천원을 지불하고 삼</u>	→	ELW가격 : 1천원

[예시2]에서 김한국은 3개월 후의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1주당 5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5만원을 하회하는 순간부터는 매 1원의 하락마다 1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단, 처음에 풋ELW를 1천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주가가 4만9천원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입니다. 한편 3개월 후의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을 넘는 경우엔 삼성전자 주식을 5만원에 팔 이유가 없으므로, 풋ELW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여 처음에 지불한 풋ELW 가격 1천원만큼만 손실을 보면 됩니다.

풋ELW 매수자의 수익구조

만기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 이상일 경우는 0 (풋ELW 매수가격만큼 손해), 행사가격에서 풋ELW 매수가격을 뺀 가격이 손익분기점, 주가가 손익분기점 이하일 경우 초과한 정도만큼 가치가 상승합니다.



풋ELW를 매수하는 이유

콜ELW와 마찬가지로 풋ELW를 매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만기까지 보유하여 권리 행사를 통한 수익 기대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익분기점(행사가격 - 매수한 풋ELW 가격)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혹은 예상과 다르게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손실을 제한하고 싶을 때 풋ELW를 매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만기 이전에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풋ELW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풋ELW를 매수한 후 만기 이전에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